진우 스님 "아깝다 느끼면 보시 아냐"

조계사서 백중 · 하안거 해제 맞아 대중법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삼독심 버려야 진정한 보시
큰 재비 받아 장보러 가던
해월 스님 · 재주 일화 소개
"돈 · 성공보다 업장소멸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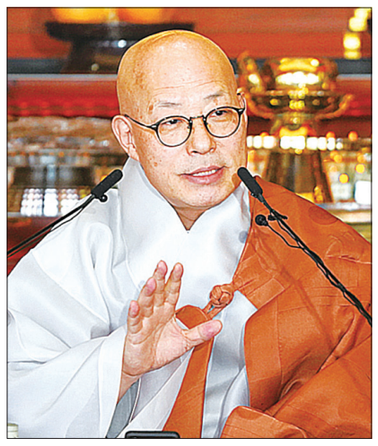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 보시를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줄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복 자체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보시도 아닌 거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30일 불교의 명절로 꼽히는 우란분절과 하안거 해제를 맞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중에게 참된 보시의 가치를 설했다. 진정한 보시는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 스님은 경허 스님의 상좌 가운데 한 명인 해월 스님 일화를 소개했다.

진우 스님에 따르면 오래전 해월 스님이 주석하던 절에 재가 들어왔다. 재주가 낸 재비는 그때 돈으로 100원. 쌀 한 말에 1원 하던 시절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돈이었다. 해월 스님은 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나섰고, 길가에서 아기를 업은 채 울고 있는 한 엄마를 만나게 된다. 해월 스님이 무슨 사연인지 묻자 아이 엄마는 월세가 밀려 80원을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답했다. 그러자 해월 스님은 80원을 건네주면서 먹을 것은 있는지 다시 물었고, 아이 엄마가 살 돈이 없다고 하자 남은 20원까지 손에 쥐여 줬다.

아이 엄마에게 재를 지낼 돈을 다 써버린 해월 스님. 스님은 나중에 재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기로 하고 시장을 떠나려는데 그곳에서 때마침 재주를 만났다. 저간의 사정을 전해 들은 재주는 "스님이 대신 복을 짓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해월 스님에게 다시 100원을 보시했다.

진우 스님이 이 같은 일화를 소개하자 조계사 불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스님은 "해월 스님께서 이 재주가 정말 참다운 불자라고 하셨다"며 "그 모습 자체로 재가 다 이뤄진 셈이다. 이 재주의 후손들도 잘산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백중과 하안거 해제를 맞아 법문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이어 "많은 불자들이 경제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원적인 고통이 사라지진 않는다"면서 "겉모양만 돈을 벌고 겉모양만 명예를 가질 뿐 스스로의 업인 삼독심은 안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모든 걸 다 갖춰 성공한 삶을 이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도 우울증은 찾아오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 진우 스님. 스님은 "돈 잘 버는 건 인연 · 연기에 맡기고 업장 소멸부터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우 스님은 "하안거를 해제하는 2천여 스님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개월간 참선만 하겠느냐"고 되물은 뒤 "내 안의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맑히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습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도 않다"며 "당장 내가 가진 삼독심만 놔버리면 그 즉시 깨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개인의 업장 소멸이 가족을 위한 전법으로 이어진다고도 역설했다. 진우 스님은 "예를 들어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잘되기 어렵다"며 "자식 스스로 마음을 깨우치도록 가르쳐줘야 한다. 자식의 업은 놔두고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경책했다.

스님은 끝으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업장을 소멸하지 못해 자꾸 괴로운 일이 생기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49일간 꾸준히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면 업장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조물서 발견된 성보, 사찰 소유권 인정"

조계종,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환영

앞으로 탑과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대한 사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수정 · 가결됐다. 두 개정안 모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탑과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고, 사찰의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사찰 소유의 건조물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사찰 소유가 분명함에도 소유권 판정 절차를 진행하는 부적합한 행정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게 조계종 측 설명이다.

조계종은 25일 해당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종단의 지속적인 노력,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조를 통해 얻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계종은 "건조물 안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보는 현행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회 정각회 등 정관계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탑 안에 봉안한 사리와 사리장엄구가 탑과 동일체이며 마땅한 사찰의 소유임은 논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유권의 판정이 무의미한 사찰 소유 건조물의 발견 문화재가 사찰의 소유임을 다시금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며 "종단은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 불교문화유산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 세계화 이끌 '국제위원' 위촉

조계종 총무원, 정범 스님 등 제10기 위원으로

해외사찰과의 교류를 비롯해 여러 국제회의 등 해외 관련 종책을 이끌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 국제정책 수립과 대외 전략을 자문하는 제10기 국제교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사회부장 도심 스님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 위촉 위원으로 △정범 스님(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 국제전법단장) △성진 스님(남양주 성관사 주지 · KCRP 종교간의대화 위원장) △문종 스님(포교원 포교국장 · 전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총무) △경완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덕재 스님(서울대 종교학과 석사과정 · 백담사 및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역임) △황순일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태국 출라롱콘대 · 일본 사이타마대 · 카자흐스탄 알파라비국립대 객원교수 역임)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 2년간이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국장단 인사 단행

직할교구사무처 등 12명
부 · 실장 임명 1주일 만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지난달 24일 각 부 · 실장을 교체하며 제2기 진용을 꾸린 데 이어 국장단 인사까지 단행하며 실무진 인선을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31일 총무원 국장급 12명의 스님들을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스님들은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선화 스님 △홍보국장 진효 스님 △감사국장 덕운 스님 △재무국장 영조 스님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설경 스님 △호법국장 정오 스님 △조사국장 종인 스님 △상임감찰 선도 스님 △상임감찰 진허 스님 △사업국장 법진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밀엄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범하 스님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각자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해 종책 업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새로 임명된 국장단 스님들.

직할교구 사무국장 선화 스님은 동진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했다. 화엄사승가대학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호법부 상임감찰, 호법국장을 역임했다.

홍보국장 진효 스님은 종오 스님을 은사로 2006년 수계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용주사 중앙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하고 현재 상주 동해사 주지를 맡고 있다.

감사국장 덕운 스님은 선지 스님을 은사로 2005년 수계했다. 통도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김포 봉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재무국장 영조 스님은 자민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운문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연등회보존위 사무국장 설경 스님은 지공 스님을 은사로 2005년 수계했다.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운문사 문수선원, 법륜사 법륜제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호법국장 정오 스님은 진원 스님을 은사로 2003년 수계했다. 법주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운필암 · 대원사 · 보현사 · 법화사 주지, 호법부 상임감찰, 조사국장, 기획실 감사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과천 관악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사국장 종인 스님은 선각 스님을 은사로 2002년 수계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총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상임감찰 선도 스님은 태원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학림사 오등선원, 팔공총림선원, 직지사 천불선원에서 안거 수행하고 사회부 사회국장을 역임했다.

상임감찰 진허 스님은 일귀 스님을 은사로 2008년 수계했다. 송광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총림선원, 망월사 천중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현재 고흥 능가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업국장 법진 스님은 무아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했다. 운문사승가대학과 동국대(경주)를 졸업하고 운문사 문수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현재 부산 청심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범하 스님은 진옥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송광사승가대학,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호법부 상임감찰, 조사과장,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원 '제35회 포교대상' 공모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과 단체를 치하하는 제35회 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0월 4일까지 대상인 종정상과 공로상인 총무원장상, 원력상인 포교원장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분야는 계층을 비롯해 직능, 문화체육, 사회, 대중매체, 지역 등에서 현저한 공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 단체다.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대상 후보자의 경우 공적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공로상, 원력상 포함 포교대상 수상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으며, 종단에서 수여하는 일반표창 수상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다. 임은호 기자

진관사 수륙재 개건 625주년·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대자비심으로 꽃피우는 생명과 평화의 기도
진관사 국행수륙재
불기 2567(2023)년
입재 9월 3일-칠재[회향]10월 21·22일



큰스님 초청법문
입재 - 용학 스님
초재 - 도혜 스님
이재 - 영진 스님
삼재 - 혜국 큰스님
사재 - 계호 스님
오재 - 지운 스님
육재 - 성우 큰스님
칠재(회향) - 성파 종정예하

문화행사
작은 음악회
(10월 3일 오후 2시 / 진관사 마당)
지화 전시회 및 시연회
(10월 5일 / 한문화체험관)

주관 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 은평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문의 02.359.8410